

작품 내용

제 목	마침표의 무게
내 용	마침표 하나를 찍기까지 나는 수백 번 지워 내고 수천 번의 밤을 건넜다. 여백 앞에서 머뭇거리다 단어 하나를 길어 올리고, 쉼표 곁에 멈춰 서 단어 하나를 내려놓았다. 숨 한 번 머무는 길이조차 수없이 고쳐 쓴 끝에 마침내 종이 위에 둥근 땀방울 하나를 맺었다. 누군가는 흘려 본 적 없는 땀으로 문장의 끝을 완성하려 한다. 그러나 그 둥근 점을 맺게 한 시간과 망설임, 끝내 흘러낸 마음까지는 가져갈 수 없다.